

신사(神社)와 ‘야오요로즈가미’(八百万神)의 나라 일본

박규태 『일본 신사(神社)의 역사와 신앙』(역락, 2017)을 읽고

박수철

1.

신사란 무엇인가.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에 따르면, “신도의 신앙에 기초하여 신들을 모시기(祭る) 위하여 세운 건물, 혹은 시설을 총칭”한다. “고대에는 야시로(社)·미야(宮)·호코라(祠)·모리(杜)라고 칭했고, 일반적으로는 ‘진주’(鎮守)와 ‘우지가미’(氏神)라는 이름으로 친숙하다. 그 구성은 신이 진좌(鎮坐)된 본전, 신을 예배하고 기원하는 등 다양

박수철(朴秀哲)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와 동양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에서 『織豊政權の寺社支配』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인가』(편역, 2017),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寺社)지배와 천황』(2012), 『아틀라스 일본사』(2011), 주요 논문으로 「‘公武체제’의 政治構造와 祈禱」(2017), 「‘公武체제’의 倫理와 座次儀禮」(2016) 등이 있다.

한 의례가 진행되는 배전(拜殿), 이를 둘러싼 신성(神聖)을 지키는 울타리(瑞垣), 참배자가 맑은 물로 심신을 정화하기 위한 곳(手水舎), 성역을 출입하는 문에 해당하는 도리이(鳥居)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 신에게 바치는 공양물을 준비하는 신찬전(神饌殿)과 폐전(幣殿), 신보(神寶)를 넣어두는 보전(寶殿), 신에게 봉납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신악전(神樂殿), 신직(神職)이 근무하는 사무소 등"이 있다. 또 오늘날은 신사 혹은 신전 건물을 지칭하는 야시로(社)와 미야(宮)가 크게 구별되지 않지만, 헤이안 시대까지는 양자가 엄밀히 구분되었고, 야시로는 오히려 모리(杜= 숲)와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헤이안 시대 『연희식』(延喜式) 신명장(神名帳)에 기재된 총 2,861사(社) 중에서 미야라고 칭해지는 신사는 이세 내궁(太神宮 3座)과 외궁(度會宮 4座) 및 별궁(荒祭宮·瀧原宮·伊佐奈岐宮·月讀宮·高宮) 5사, 시모사국의 가토리신궁(香取神宮), 히타치국의 가시마신궁(鹿島神宮), 지쿠젠국의 하코자키궁(宮崎宮), 부젠국의 우사궁(宇佐宮) 등 총 1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야시로였다. 이 2,861사(모셔진 신은 3,132座)만 한정하더라도 이 중에는 숲이나 바위를 그대로 신사로 삼은 경우도 있듯이 신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신사 형태는 그 곳에 모신 다양한 신의 존재를 반영한다. 다양성의 이유는 『신도사전』(神道事典, 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 編, 1999)에 “일본의 신들은 구체적인 사물·현상·국면에서 관념화된 것으로, 추상·관념·이념적인 존재가 아니다”고 하듯이 일본 신이 추상성이 약하고 구체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미(迦弥=神)는 옛 서적에 보이는 천지(天地)의 여러 신을 시작으로, 이를 모시는 야시로에 거주하는 미타마(御靈)도 있고, 또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새·짐승·나무·풀(鳥獸木草)류, 바다·산(海山) 등, 그 무엇이든 평범하지 않은 뛰어난 덕이 있고 외경스러운 사물(物)을 가미라고 한다”(『古事記傳』 3)고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처럼 신이 너무도 다양·다기하기에 흔히 ‘야오요로즈가미’(八百万神)로 통칭되는 무수히 많은 일본의 신과 신사를 일목요연하게 계통적으로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마침 이 문제에 관해 박규태 교수가 『일본 신사의 역사와 신앙』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발간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신사』(2005)라는 저서를 비롯하여, 『신도, 일본태생의 종교시스템』(이노우에 노부타카, 2010), 『신도』(스콧 리틀턴, 2007), 『일본신도사』(무라오카 쓰네히코, 1998) 등 일본 신도에 관한 수많은 번역서를 내어 일본 종교 분야에 관해 가히 국내의 일인자라 할 정도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펴낸 『일본 신사의 역사와 신앙』은 800 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할당된 짧은 지면을 고려할 때 모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종교’의 핵심적인 특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바로 왜 일본은 ‘야오요로즈가미’의 나라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2.

총 4부로 구성된 『일본 신사의 역사와 신앙』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서언 신사란 무엇인가
- 1부 신사의 역사
 - 1장 신사의 원형과 역사적 기원
 - 2장 고대의 신사와 신사제도
 - 3장 중세의 신사와 신사제도

	4장 근세의 신사와 신사제도
	5장 근대의 신사와 신사제도
	6장 전후의 신사와 신사제도
2부	신사의 경관과 구성 요소
	1장 신사의 경관
	2장 신사의 구성 요소Ⅰ: 사전
	3장 신사의 구성 요소Ⅱ: 제신
	4장 신사의 구성 요소Ⅲ: 제사
	5장 신사의 구성 요소Ⅳ: 신직
3부	신사신앙의 유형: 유래와 특징
	1장 원령신앙과 신사
	2장 인신신앙과 신사
	3장 산악신앙과 신사
	4장 해신신앙과 신사
	5장 기타 주요 신사신앙
4부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신앙
	1장 하치만신앙과 신사
	2장 이세신앙과 이세신궁
	3장 천신신앙과 신사
	4장 이나리신앙과 신사
	5장 회사와 신사신앙
	맺음말 신사와 일본인

먼저 저자는 서언 「신사란 무엇인가」에서 신사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신사란 “사람이 제사(마쓰리)를 지내는 곳”(야나기타 구니오), 혹은 “신도의 신들을 제사지내기 위해 설치한 건물 또는 시설의 총칭”(『신도사전』)

이다. 이 기존 정의에 따르면 신사의 핵심 요소는 ‘제사’다. 반면 저자는 “교회나 성당 등의 신전과 마찬가지로 신을 제사지내는 종교 시설”이라고 하여 ‘제사’와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종교’ 시설이라 하여 종교적 측면도 중시한다. 이처럼 신사의 본질이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제사’에 있는가, 현세구복·내세구원을 본질로 하는 ‘종교’인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다소 절충적이다. 저자는 “신도(神道 신토)라고 불리는 종교가 그것이다. 신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신도의 신전(Shinto shrine)으로 말해진다”라고 일단 ‘종교’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신을 마치 사람처럼 ~상(樣)으로 부르기도 하는 친근성과 신사가 일본 전통문화의 하나로 정착되어 일본인의 삶 속에 녹아 내면화된 점을 들어 “일본인들이 신사를 단순한 객체로서의 종교 시설로만 관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사의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제사)도 강조한다. 즉, “종교이자 동시에 관습 혹은 전통”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사 속에 종교와 관습적 측면이 병존한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문제는 어떤 요소가 좀 더 본질적이며,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요소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규정되고 발현되었는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든다.

1부 「신사의 역사」에서는 신사의 원형과 그 후 전개과정을 상세히 고찰한다. 신전(본전)이 없는 형태가 신사의 원형이란 통설의 관점에 서서, 신사 형태가 구체화되기 이전 신사를 지칭하는 간나비(神隱=신이 숨어 있는 곳), 야시로[社=성스런 공간, 그 상설 제사 시설이 미야(宮)], 호코라[祠=신보(神寶) 보관 창고], 모리(사카키, 미모로=나무 혹은 숲)와 이와쿠라·이와사키(바위), 고쇼(성스런 장소)와 히모로기(올타리) 등 여러 신사 관련 용어를 분석한다.

저자는 통설대로 모리와 이와쿠라라는 자연물에서 야시로와 미야 등 상설 인공 시설로 변화하는 것으로 신사의 성립 과정을 파악한다. 『국사대사전』에도 미야(宮)의 시작은 제사를 올리기 위한 가설 건물이었다는데, 항례 제사가 연 1회(新嘗祭)에서 2회(祈年祭와 新嘗祭), 이어 춘하추동 4회, 매달 12회, 24절기로 제사가 확대되면서 상설 건물인 미야로 되었고, 상설 건물은 아스카 시대에 도입된 불교의 사원 건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저자는 신사에 대한 관념과 역할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신사는 주로 국가의 통치기제로 기능했으며 근세 말에 이르기까지 민중들 사이에서는 불교 사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종교 시설로 관념되었고, 신불분리로 시작된 근대에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고 강변되었는가 하면 오늘날 신사는 이른바 ‘숲의 종교’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신사의 역사를 간결히 정리한다.

신사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흥미롭지만, 사실 신사(신기신앙)가 “주로 국가의 통치기제로 기능”한 것은 고대·중세에만 국한된 특질은 아니며, 신사는 고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가 및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가 신사의 어떤 요소와 속성을, 여러 상황에 따라 시대별로 어떻게 이를 이용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사라는 명칭이 7세기 후반 덴무 천황기에 성립되었다는 저자의 서술은 눈길을 끈다. 저자는 681년 기나이(畿内)와 제국(諸國)의 아마쓰야시로(天社)와 구니쓰야시로(地社) 및 신궁(神宮)을 수리한 것과 이로부터 3년 후인 684년 10월, 대지진과 관련하여 “여러 국(國)과 군(郡)의 관사(官舍) 및 백성의 창고, 사탑(寺塔)과 신사(神社)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파괴되었다”는 기사에 주목했다. 확실히 이 무렵 고대 율령제 확립과 더불어 신기관(神祇官)을 두고 신기제사가 정립된 것은

신사 성립의 획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율령이 도입된 이후 신기의 제사와 행정은 점차 기존 관습법 체제에서 성문법을 기반한 체제로 전환한다.

그 후 헤이안 중후기(10세기에서 12세기경)가 되면 중앙의 관사(官社)제도가 크게 변질한다. 기내에는 22사제(社制)로, 각 국(國)은 일궁제(一宮制)로 정비되어간다.¹ 저자가 지적하듯이 “전국 신사를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으로 장악하여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부터 오직 영험 있는 특정 유력 신사의 가호를 통해 국가 지배의 안정을 꾀하려는 형태로 크게 방향 전환”하게 된다. 저자는 이 외에 중세 신과 불의 결합인 신불습합의 내용과 무로마치 시기에 등장한 일본 중심 색채가 강한 요시다(吉田) 신도, 이 요시다 신도가 에도 시대에 주류가 된 과정, 메이지 유신 이후 신불분리 정책과 국가신도의 도입 등을 순차로 고찰한다.

2부 「신사의 경관과 구성요소」에서는 도리이부터 신을 모신 본전과 배전 등 신사 건축물을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신사 건축물에 한정하지 않고 신사의 주술적 경관이란 관점에서 에마(絵馬, 신께 소원을 빌기 위해 말을 그린 부적), 오미쿠지(御神籤, 길흉을 점치는 제비뽑기) 등을 비교적 상세히

1 우에지마 스스무(上島亨)에 따르면 8세기 말 관사(官社)는 관폐사(官幣社)와 국폐사(國幣社)로 나뉘어졌고, 국폐사의 반폐(班幣)는 지방관인 국사가 맡았다. 그런데 관폐사의 경우도 9세기 중엽부터 폐백을 받으러 와야 될 원격지 하후리베(祝部)의 불참이 현저해졌으며 9세기 말이 되면 기내 제사(諸社)로까지 확대된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세력의 저항이 깔려 있다. 지방의 유력 부호층은 불교에 편승하여 신궁사(神宮寺)를 건립하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에 나섰고 그 결과 율령국가 중심의 고대 신기질서는 점차 형해화된다. 중앙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헤이안 초기 기우(祈雨)·기년곡(祈年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대사(大事)가 있으면 임시로 주요 신사에 사자를 파견하여 봉폐를 드렸다. 그리하여 조정이 봉폐를 올리는 소수의 신사가 출현했고 9세기 말·10세기 초 이세신궁을 비롯한 16사로 고정된다. 이 16사가 11세기 말에 이르러 22사로 고정되었으며, 이 시기가 되면 이세신궁과 이와시미즈하치만궁은 ‘종묘’(宗廟)로 간주되었다.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초에 이르러 국마다 중앙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지방 나름의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궁제가 성립한다(上島亨, 『日本中世社会の形成と王権』, 名古屋大学出版会, 2010, 232~242쪽).

설명한다.

저자는 에마의 원형과 관련하여 기청제일 때는 백마를, 기우제 때는 흑마를 신사에 봉납했던 관례가 반영된 말 그림으로 보았다. 또 “에마 상부가 산 모양으로 된 것은 다분히 마구간 정면의 지붕을 나타낸 것”이라는 야나기타 구니오설을 소개하면서, 에마가 신사 사전과 도리이에 걸리게 된 것은 헤이안 시대 초기였으며, 신불습합이 진행된 헤이안 시대 말기에 이르러 부처에게도 봉납되었으며, 이러한 에마 봉납은 중세 가마쿠라 시대에 널리 퍼졌고 무로마치 시기에는 민간에도 유포되었으며, 근대 다이쇼와 쇼와 시대에는 전승과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군국 에마도 나타났다고 하여 에마의 변천 과정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 외에 에마와 더불어 현재 일본 신사의 대표적 풍경 중 하나인 오미쿠지의 유래에 관한 저자의 지적도 흥미롭다. 저자는 1713년 테라지마 료안(寺島良安)의 저서(『和漢三才圖會』 권70 寺社 항목)를 근거로 천태종 승려 원삼(元三)대사 료겐(良源 912~985)의 백침(百籤, 1에서 100까지 적힌 백 개의 대나무 제비를 통에 넣고 숫자를 뽑아 길흉득실을 점침)을 오미쿠지의 원형으로 보았다.

저자는 ‘신사의 구성요소’로 사전(社殿), 제신(祭神), 제사(祭祀), 신직(神職)을 신사의 네 가지 핵심 사항으로 파악했다. 먼저 사전과 관련하여 도리이와 신사문장, 신성 지역을 표시하는 고마이누(狛犬), 신목(神木), 다마가키(玉垣, 울타리) 등을 고찰했고, 이어 신사 건축 양식과 관련한 여러 양식(神明造, 大社造, 住吉造, 春日造, 日吉造, 祇園造, 流造, 八幡造, 權現造)을 자세하게 정리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나 일반적이고 개설적인 서술에 그쳐 이들 요소를 관통하는 논리나 종합적인 주장이 없는 점은 아쉽다.

이어 ‘제신’, ‘제사’, ‘신직’에 관해서도 저자는 “신사의 경관을 외적 풍경과 내적(주술적) 풍경으로 나누어 기술한다”고 했으나 역시 일반적인 설명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3부에서 다루는 내용과 서술이 왕왕

중복되기도 한다. 차라리 2부 「신사의 경관과 구성요소」에서는 신사의 풍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외적 요소를 고찰하는 데 치중하고 추상적인 이념이나 사상은 3부 「신사신앙의 유형」에서 깊이 다루는 편이 일관성 있고 짜임새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3부 「신사신앙의 유형」에서는 통상 잘 사용하지 않는 ‘신사신앙’이란 저자의 용어가 눈에 띈다. 저자는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과 의례 체계를 원령신앙, 인신신앙, 산악신앙, 해신신앙 등으로 나누고 있다. 저자는 먼저 원령신앙에 주목했다. 원령신앙이란 생전에 원한을 품고 죽은 인간의 영혼이 원령(怨靈, 혹은 御靈)이 되어 역병이나 재액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신으로 모셔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다. 저자는 간무천황의 동생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와라(早良) 친왕[스도(崇道) 친왕] 등을 제사지내는 어령회(御靈會)를 언급하면서, 원령신앙은 역병의 창궐과 관련이 있으며 어령회가 역신(疫神)신앙과 융합하면서 970년 기온사(祇園社, 현 야사카 신사)의 기온어령회가 된 과정을 소개한다.

이어 인신신앙의 항목 아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으로 모시는 신앙을 고찰하고, 산악신앙에 관해서는 구마노, 후지, 학산(白山) 등 민속종교로서의 수험도가 신사신앙과 결부된 사례를 소개하고, 해신신앙으로는 오사카의 스미요시, 신공황후설화와 관련 깊은 규슈의 무나카타 신사 등의 신앙을 살피고 있다. 그 밖에 복덕을 관장하며 야차신이기도 한 대흑천(大黒天), 항해와 상업의 수호신인 에비스, 운명의 신 포대(布袋), 수명의 수호신 복록수(福祿壽)와 수노인(壽老人), 북방을 수호하고 재산과 부귀를 관장하는 비사문천(毘沙門天), 음악과 재복의 신 변재천(弁才天) 등 칠복신 신앙과 관동 지역의 대표적 신사인 지바현 사와라시의 가토리신궁과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의 가시마신궁과 관련된 신앙을 소개한다.

여러 신앙에 관한 저자의 세세한 내용 정리는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저자가 인신·산악·해신 신앙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한 ‘신사신앙’이란 용어에는 다소 위화감이 있다.

『신도사전』의 〈신사와 신앙〉이란 표제어 아래에는 이세신앙, 이즈모신앙, 이나리신앙, 가스가신앙 등 신사와 밀접히 관련한 신앙을, 〈산악신앙〉에는 후지신앙, 테와삼산신앙, 닛코산신앙 등 산을 신성시하는 신앙에 관한 항목을, 〈민간의 제(諸)신앙〉에는 미타마(御靈)신앙, 에비스신앙, 묘켄(妙見)신앙, 권현(権現)신앙 등의 항목을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왜 이런 일반적인 구분과 달리, ‘신사신앙’이란 항목 아래 원령, 인신, 산악, 해신을 그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했는가. 이렇게 하면 선행 연구보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령신앙의 경우 크게 보면 인신신앙에 속하는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굳이 원령과 인신으로 병렬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신사신앙’이란 새로운 범주를 제시한 이상, 이에 대한 상세한 개념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개별 신앙의 설명과 소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중에서 저자가 이들 신앙과 한반도와 연관성을 지적한 점은 눈길을 끈다. 저자는 8세기 중엽 살우의례 설화와 역신으로서의 가라가미(漢神) 신앙에 관하여, 종래 연구가 가라가미를 중국 신으로 해석한 것을 ‘오역(誤譯)’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신”으로 해석한다. 그 외 학산(白山)신앙과 고구려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백’은 ‘밝’에 대응되는 글자”, “3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성수”, “구마노삼산이라든가 테와삼산 등 삼산의 형식이라든가, 히코산삼소권현, 구마노삼소권현, 다이센삼소권현, 닛코산삼소권현 등 삼소의 형식도 환인, 환웅, 단군을 제사지내는 단군신앙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며 실제로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저자의 주장이 충분히 실증되었거나 논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연구를 기대해본다.

4부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신앙」에서 저자는 “본서 제3부의 〈표 1〉에 따르자면, 가장 많은 분사수를 가진 대표적인 4대 신사신앙으로 하치만신앙(7,817사), 이세신앙(4,451사), 천신신앙(3,953사), 이나리신앙(2,924사)”이라고 했다. 이 숫자에 근거하여 저자는 대표적인 무가의 신으로 알려진 하치만신앙과 주요 신사(우사, 이와시미즈, 쓰루가오카), 천황가의 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시는 이세신앙과 이세신궁,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천신신앙과 신사(기타노텐만궁), 오곡풍양의 식물신이자 농경신, 산업 번창의 신을 모신 이나리신앙과 이나리신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는 도래계 하타 씨 및 동사(東寺)와 이나리신사와의 관계, 곡물신일 뿐만 아니라 상공업신으로 발전해나간 이나리신앙, 이세신궁의 식년천궁(式年遷宮)에 관한 여러 학설 소개 등 흥미로운 내용이 적지 않다.

다만 저자가 제시한 통계 숫자는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1990년에서 1995년에 걸쳐 신사본청 회하 7만 9,355사 중 제신이 명확하게 판명된 4만 9,084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神社本廳 編, 『全国神社祭祀祭礼綜合調査』, 1995)를 근거로 작성한 〈표〉에서는 1위 하치만, 2위 이세, 3위 천신, 4위 이나리신앙으로 파악했다. 그렇지만 저자가 소개한 또 다른 자료인 1999년의 『신도사전』(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 編)에 근거한 분사 수는 1위 이나리(후시미 이나리신사, 3만 2천), 2위 하치만(이와시미즈 하치만궁과 우사신궁, 2만 5천), 3위 이세(이세신궁, 1만 8천), 4위 천신신앙(기타노텐만궁과 다자이후텐만궁, 1만 441)이다. 따라서 저자가 특히 중시하는 이나리신앙은 각각 1위와 4위로 편차가 너무 크다. 제시한 두 자료의 성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

는가. 그래서 일본 제일 신앙은 하치만신앙인가, 이나리신앙인가. 2000년 이후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저자의 ‘회사종교’에 관한 서술과 문제의식이다. 이 부분은 저자가 맺음말 「신사와 일본인」에서 언급한 일본인에게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저자는 현재 수많은 회사가 그들만의 신사를 세우고 회사 임원 및 종업원들이 함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기묘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근대 일본사회와 종교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자가 이러한 ‘회사종교’ 현상을 신도와 불교의 전통적 역할 분담 체계와 관련지어 파악한 대목이 흥미롭다.

저자는 2003년 기준 650여 개소의 기업박물관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시 양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회사와 창업자의 역사를 전시하는 유형으로 “과거와 죽은 자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호토케(佛)의 세계에 비견”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과 제품에 관련된 사업 전시로, 이는 “장사번창을 희구하는 가미(神)의 세계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죽음을 관장하는 불과 이승을 관장하는 신이란 신불의 분업체계에 대한 적절한 비유다. 저자의 지적대로 “가미와 호토케는 기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본문화에서는 중세 이래 신불융합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통상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가졌고, “신도적 가미는 현세적 생(生)의 문제를 담당하고 불교적 호토케는 선조제사와 관련된 사(死)의 영역을 담당”했다. 새삼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강고한 신불융합의 생명력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신불의 분업체계에 대한 지적이 인상적이다.

3.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3월 한국의 종교 시설은 10만 6,366개소(사원 2만 6,791, 교회 7만 7,966, 성당 1,609)인데, 1990~1995년 일본의 신사본청 휘하 신사는 7만 9,355곳이라 한다. 왜 유독 일본의 신사는 이처럼 많을까? 신사의 어떤 속성이 일본인에게 어필한 것인가.

저자는 〈후기〉에서 이 점에 관해 흥미로운 서술을 하고 있다. 저자는 신사를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을 보면서 그중에서도 지진을 막아주는 요석(要石)으로 유명한 가시마신궁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한다. 이어 지진과 관련 있는 나마즈에(鰐絵=메기 그림)를 보면서 “내 안 어딘가에서 또 다시 여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저자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에도의 일본인들이 겪었을 공포와 통증과 삶에 대한 아픈 물음들과 절실한 유희들을 상상”했다고 한다. 왜 신이 필요한가라는 신사의 본질에 대해, ‘삶에 대한 아픈 물음들과 절실한 유희들’의 결과라는 저자의 답변에서 실로 문학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갖춘 저자의 예리한 감각이 느껴진다. “우리가 신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잔인하도록 아름답거나 혹은 아름답고도 잔인한 얼굴”이며,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이런 신의 얼굴에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표현도 이러한 저자의 문학적 감수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과연 저자처럼 신의 실체에 관한 일본인의 대응을 ‘삶에 대한 아픈 물음과 절실한 유희들’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구분 지으면서도 그 양자 사이에서 위태로운 게임을 즐겨왔다. 그와 같은 유희의 정신으로써 무수한 자연재해와 혹독한 무가통치의 억압을 넘어서고자 했”다는 저자의 문학적 표현력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왜 하필 자연재해와 혹독한 무가통치의 억압을 ‘유희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하는가. 그 필연성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선뜻 이

해하기 어렵다.

저자가 신사의 존립 배경으로 지적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땅이고 대지여야 하는데, 늘 흔들리는 땅에서 살아온 일본인들에게 제액초복의 관념이 잘 발달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란 서술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진과 화산 등 수많은 자연재해와 신의 존재를 연결 지어 파악하는 저자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며, 실제 많은 일본 연구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혹독한 자연재해와 가혹한 지배층의 억압은 동서고금 어느 곳이나 적용되는 공통 사항이며, 반드시 일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지진과 화산은 환태평양 지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해답을 자연환경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또한 불안한 환경 속의 일본인이 다양한 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절대 유일신에 귀일하여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도 얼마든지 있다. 혹여 유일신은 일본인의 정서에 맞지 않다거나 다신교가 일본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식의 일본인의 정서나 국민성으로 돌리는 관점도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일본사회의 상황에 기반한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15세기를 전후하여 크리스티교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고 또 일향종(一向宗) 신도와 같이 오직 아미타불만을 유일하게 숭배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과 일본사회는 유일신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야오요로즈가미(八百万神)란 무수히 많은 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 역시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일본의 다양한 토착 신들이 사라지고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살아남은 이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확실히 일본사회는 원시 이래의 다양한 신을 없애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갔다. 일본의 신 관념은 일반적으로 신기신앙·

신도로 나타나며 이 관념의 핵심에는 애니미즘이 있다. 산, 강, 바위, 나무, 번개, 바람 등 자연계의 신기한 사물은 인격을 가진 생명처럼 간주된다. 다만 애니미즘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데 왜 유독 일본사회에서 다양한 신의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필자는 그 생존의 비밀 ‘열쇠’가 신기신앙·신도와 불교 간 ‘습합’(習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계 종교인 불교와 해당 토착 종교 사이의 습합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루어졌기에 ‘습합’ 자체는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습합’이라도 일본의 신불습합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습합의 ‘방식’이 확인된다.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는 일본 종교의 특질이 신불습합에 있다고 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² 즉 인도에서는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되어 사라졌지만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는 토착 종교를 압도했고, 한반도에서는 일본처럼 불교가 토착 샤머니즘과 습합하면서도 이 샤머니즘이 신도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토착 종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교로 체계화되어 불교와 병존했지만, 중국의 불교와 도교는 일본의 신도와 불교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었다. 즉 일본의 신도와 불교는 단순히 병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분업체제(삶의 의례는 신도, 죽음에 관한 의례는 불교)를 갖추고 서로 보완관계를 이루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³

2 末木文美士, 『中世の神と佛』, 山川出版社, 2003, 4~5쪽. 스에키에 따르면, 일본의 신불습합은 나라 시기에 본격화되는데 초기에는 일본 신을 불교의 천(天)이나 호법신(護法神)으로 파악하는 단계에서, 헤이안 시기에 이르면 장왕권현(藏王權現)과 같은 새로운 신을 창출하거나 본지수적설에 따라 아마테라스오미카미=대일여래와 같이 모든 신과 불을 연결지어 파악하는 이론으로 발전했다(17~25쪽).

3 그러면 왜 일본의 신도만이 불교와 분업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불확하나 이 점은 추후에 고찰해보고 싶은 과제다. 다만 이 문제가 유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가 조상제사와 결부된 형태로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일본사회는 씨신과 결부된 신사(신기신앙)나 혹은 불교로 그 자리를 메워나갔다. 또 합리주의에 근거한 유교사상은 애니미즘을 미신으로 배격하는 길로 나간 데 비해, 유교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일본

이처럼 애니미즘에 기초한 토착 일본 신이 신불습합을 통해 불교와 역할을 분장하면서 살아남게 된 것이 ‘야오요로즈가미’의 나라 일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신의 숫자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신신앙이다.

일본 종교의 독특한 특질 중 하나인 인신신앙은 “실존했던 인물을 사후에 제사드리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한다. 물론 관제묘에 안치된 관우 처럼 다른 나라·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유명한 인물이 아닌 보통의 일반인도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비유하자면 서양에서는 ‘saint’(聖人)에 오르는 데 그칠 사례가 일본에서는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그 숫자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실존했던 인간을 신으로 제사드리는 신사를 ‘인신신사’(人神神社)라고 규정한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7세기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가 죽은 직후 그를 제사드리기 위해 나라현에 세운 사전(社殿, 현 談山神社)을 그 효시로 보았다.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9세기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기 위해 세운 기타노덴만궁(北野天滿宮)을 인신신앙과 관련된 중요 신사로 본다. 또 헤이안 시기의 인신신앙은 이처럼 원령을 위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야나기타 구니오는 역사상 일본인은 원령사상에 기반하여 사후 타인에 의해 신으로 모셔지는 것이 보통인데, 히데요시는 생전에 스스로 신이 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라고 했다. 다

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약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애니미즘은 신기신앙·신도와 결부된 채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즉 필자는 ‘유학’은 전파되었지만 과거제의 부재로 상징되듯이 ‘유교’가 일본사회에 깊이 토착화하지 못한 점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4 小松和彦, 『神になった日本人』, 日本放送出版協会, 2008.

만 “풍태합(豊太閤)처럼 행복한 무장이 죽어 신하치만(新八幡, 새로운 하치만신)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가, (이는)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⁵라고 하면서 히데요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보면 이러한 인신신앙의 큰 변화가 히데요시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 변화는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기에는 요시다 신도의 역할이 컸다.⁶ 특히 요시다 신도가 불교식 장례 의례에서 벗어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카다 쇼지(岡田莊司)에 따르면, 요시다 가문의 당주(當主, 당대 주인)는 무로마치 시기에 이르러 불교식 장례를 부정하고 신도식 장례식을 도입했고, 그 결과 요시다 가문의 당주가 죽으면 그 매장된 무덤에 ‘~령사(靈社)’를 세웠고 이로써 당주는 호토케(佛)가 아닌 가미(神)이 되어 요시다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⁷

무로마치 시대가 인신신앙의 전환 시기였다는 점은 후지와라노 가마타리를 신으로 모신 경위를 적은 「다무봉연기회권」(多武峯緣起繪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로마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무봉연기회권」에 따르면, 가마타리는 장남(真人, 출가 후 定慧)의 꿈에 현몽하여 “단포(談峯)는 유례가 없는 성지(聖地)다. 이곳에 나의 묘를 쓰면 자손이 번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단포(談峯)에 사탑(寺塔)을 세워라. 나

5 柳田国男, 「人を神に祀る風習」, 『定本柳田國男集』 第10巻, 筑摩書店, 1962, 498쪽.

6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신기사상은 비로소 교의적 체계를 갖추고 신도로 자칭했으나, 천태종 계통의 산왕신도(山王神道)와 밀교의 영향이 강한 양부신도(兩部神道)처럼 불교와 습합한 형태였다. 그렇지만 남북조 시기 이후 『신왕정통기』(神皇正統記) 등 일본 중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본적 색채가 강한 요시다 신도가 나타났다. 무로마치 중기 요시다 신도의 창시자라 할 요시다 가네토모(吉田兼俱)는 ‘근엽화실설’(根葉花實説)을 제기하여, 일본의 신도야말로 만물의 뿌리이며 여기에서 줄기인 유교와 과실인 불교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불교에 종속되었던 신도의 자립으로 평가된다.

7 岡田莊司, 「近世の神道葬祭」, 『近世の精神生活』, 續群書類從完成会, 1996.

는 신이 되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와 자손을 지킬 것이다⁸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 논리는 “아미타봉(峰)에 대사(大社)를 세워 제사를 받고 싶다”⁹는 “사후에 신이 되어 신하치만(新八幡)으로 칭해질 것을 원하였다”¹⁰는 히데요시의 유언과 매우 흡사한 논리와 서사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사후 자손(子孫)을 지키려고 하는 관념은 히데요시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갔고, 에도 시대 여러 다이묘들도 자손번영과 영지수호를 위해 선조를 신으로 모신 신사를 세웠다. 또한 마을의 일반 백성조차 목숨을 바친 의인을 신으로 삼았고 에도 시대 의민(義民)으로 유명한 사쿠라 소고로(佐倉惣五郎=佐倉宗吾)와 같은 사례가 124사(社)나 있었다.¹¹ 나아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병사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일반인도 초혼사(招魂社)와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안치되어 신이 되었으며, 신의 증가는 현재에도 멈추지 않아 저자가 소개해주었듯이 요코하마의 마무리 투수로 유명했던 야구 선수조차 신으로 모시는 일이 나타났다.

무로마치 시기 원령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제사지내는 인신신앙의 변모로 인해 불완전한 인간도 생전 뛰어난 업적을 남기면 신으로 승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사회는 더욱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한 번 출현한 신이 ‘신불습합’으로 대부분 소멸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신신앙’으로 신의 숫자가 더욱 확대된 결과 ‘야오요로즈가미’의 나라 일본이 되었다.

8 小松和彦, 『神になった日本人』, 17쪽.

9 『お湯殿の上の日記』慶長 4年 3月 5日條.

10 和田萬吉 譯, 『モンタヌス日本志』, 丙午出版社, 1925, 213쪽.

11 小松和彦, 『神になった日本人』, 131쪽.